

오늘

하루도

잘
먹고
살
일
입
니
다

2025 MAR
Vol. 684

K-water Monthly Magazine

물, 자연 그리고 사람

03

오늘 하루, 당신 주변에는
어떤 일이 일어났나요?
3월호는 끼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아무리 바쁜 날에도 당신이
한 끼 잘 챙겨 ‘먹을 수’ 있길 바랍니다.

Special
THEME

04. 월간 수토픽

한국수자원공사
보츠와나 통합물관리시스템 구축사업 수주

우리
웃을 수

08. INTRO

이재호, 『프랑스식 자취 요리』 중에서

10. 일상적 사유

사랑을 부르는 서울푸드

14. 일상의 쓸모

먹보의 나라, 한국의 ‘음식’ 기록

16. 사적인 투어

맛있는 냄새가 술술 풍기는
시장에 가면

20. 오늘 일기

평생 한 가지
음식만 먹어야 한다면?

함께
즐길 수

22. 다시갈지도

계절을 기다리는 시간
광양

30. 보물여지도

팔색 매력 도시
광양으로 가자

34. 사람人지도

오로지 칼끝을 따라온 인생
박종균 장도장

38. 광양 한 상

한입에 담기는 봄의 맛
매실장아찌 김밥

내일
좋을 수

40. 수타벅스가 간다

나의 자랑 나의 힘
아산권지사

44. Live on

- 초순수 기술 검·인증 기반 구축
- 대한민국 일하기 좋은 기업 선정

48. Focus on

물의 가치를 되새기다
2025 세계 물의 날

50. News on

52. 온전한 지구

물에게 물었다

54. Report on

봄바람 타고 온 소식

56. 워터피디아

57. 방울특파원

58. 방울사서함

K-water Monthly Magazine

물, 자연 그리고 사람

우리 웃을 수



사랑을 부르는
서울푸드

함께 즐길 수



계절을 기다리는 시간
광양

내일 좋을 수



시대를 이끄는
한국수자원공사의 이야기



<물, 자연 그리고 사람>을
웹진으로 만나보세요.

창간일 1968년 1월 | 발행일 2025년 3월 1일 | 통권 684호 | 편집 홍보실
발행처 한국수자원공사(www.kwater.or.kr)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로 200 | 제작·대행·인쇄 이팝

<물, 자연 그리고 사람>은 한국수자원공사에서 발행하는 물 전문 매거진입니다. <물, 자연 그리고 사람>은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 윤리 강령과 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 이 책에 게재된 글은 한국수자원공사의 공식 입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친환경 식물성 원료인 콩기름과 친환경 용지를 사용해 인쇄했습니다.

K-water

첨단 물 기술 아프리카에 달다

한국수자원공사
보츠와나 통합물관리시스템 구축사업 수주

한국수자원공사는 빠르게 성장하는 글로벌 물시장에서 ODA사업부터 투자사업에 이르기까지 장기간 해외시장에서 축적해 온 물관리 역량을 바탕으로 남다른 물관리 리더십을 선보이고 있다. 여기에 최근에는 보츠와나의 통합물관리시스템 구축사업 수주에 성공하며, 아프리카 물 시장에 최초로 초격차 물관리 기술을 수출했다.

글. 편집실 사진. 한국수자원공사



보츠와나(Republic of Botswana)

수도 가보로네 (Gaborone) 인구 244만 명 (2022년 기준) 면적 581,730km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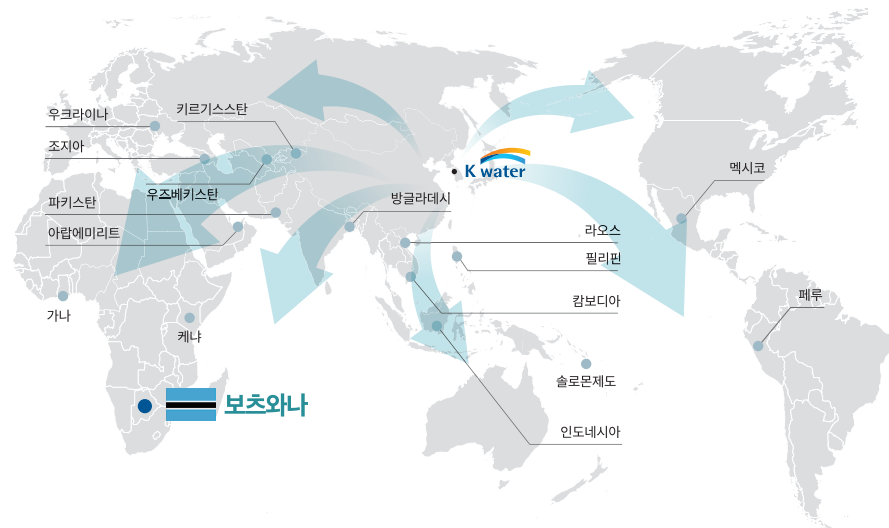
국기 하늘색은 기후가 건조한 보츠와나에서 중요한 자원인 비를 상징,
흰색 테두리의 검정 줄무늬는 서로 다른 인종의 화합과 협력을 의미한다

GDP 208억 달러(2023년 기준, IMF)

- 세계 주요 다이아몬드 생산국 중 하나로 다이아몬드 산업이 수출의 80% 차지
- 세계자연연구소(WRI)가 발표한 물 스트레스가 가장 높은 국가 25개국 중 하나

Botswana

한국수자원공사 해외사업 현황



투자사업
6건



ODA사업
18건



수주사업
2건



사업개발과제
12건

한국수자원공사

보츠와나의 물 문제 해결 파트너로 나서

보츠와나 정부는 효율적인 수자원 관리를 국가 최우선 과제로 지정한 후 국가 예산의 상당 부분을 신규 댐 건설 물 재이용 등의 수자원 확보를 위해 투자하고 있다. 그 일환으로 지난 2월 14일 보츠와나는 한국수자원공사와 약 220억 원 규모의 '통합물관리시스템 구축사업'을 계약했다.

한국수자원공사는 지난 2017년부터 ODA사업을 통해 보츠와나와 물관리 분야의 협력을 이어왔으며, 특히 지난 2023년 COP28에서 윤석대 사장과 보츠와나 수자원주택부 장관과의 고위급 면담을 계기로 이번 사업이 급물살을 타며 본격화되었다. 한국수자원공사의 통합물관리시스템은 디지털트윈 기술을 접목한 물관리 플랫폼으로서 종합적인 댐 운영을 비롯해 지역별 지하수 수위, 수질, 유출 지하수 현

황 등의 정보를 수집해 관련 정책을 수립하도록 지원하는 시스템이다.

이번 계약을 통해서도 보츠와나 수도 가보로네 인근 림포포 유역을 관리하기 위한 151개 관측소와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 통합물관리 상황실이 설치된다. 향후 보츠와나 전국으로 사업을 확대해가며, 디지털트윈 등의 초격차 기술도 단계별로 접목할 계획이다.

보츠와나는 한국수자원공사와의 이번 사업을 통해 초격차 물관리 기술을 도입함으로써 보유 수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지속적인 경제발전의 기반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국가 물 안보 향상을 위해 기술 교류 등 물관리 협력을 강화해 나갈 것을 희망하고 있다.

보츠와나 통합물관리시스템 구축사업

수문자료 관측(151개소)



강우 관측소



수위 관측소



수질 관측소



지하수 관측소



물관리 솔루션을 통한 기뭄 극복

다이아몬드보다 물이 귀한 나라, 보츠와나

아프리카 남부에 위치한 보츠와나는 나미비아, 짐바브웨 그리고 남아프리카공화국과 국경을 맞대고 있는 나라다. 보츠와나를 빛나게 하는 건 다름 아닌 '다이아몬드'다. 세계 최대의 다이아몬드 생산국으로 관련 산업이 GDP에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할 정도로 중요한 자원으로 여겨진다.

그런 보츠와나에서 다이아몬드보다 더 귀하게 여겨지는 자원이 있다. 바로 '물'이다. 보츠와나는 세계에서 물 부족이 가장 심각한 국가 중 하나다. 한반도의 2.7배에 달할 만큼 면적이 넓지만 정작 국토의 70%가 사막으로 이뤄진 데다 연평균 강수량은 약 400mm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다이아몬드 채굴 및 정제 과정에서 어마어마한 양의 물이 필요하다. 거니와 최근 국가의 도시화가 가속화되고 있어 물 수요도 증가하는 상황. 급증하는 물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효율적인 물관리 정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졌다.



1 윤석대 사장-보츠와나 수자원주택부 장관 COP28 회담
2 한국수자원공사-보츠와나 통합물관리시스템 구축사업 체결식



보츠와나 가보로네 댐

기회의 땅, 아프리카 시장 진출의 마중물

이번 계약은 한국수자원공사를 단독 사업자로 지명, 대규모 사업비용을 ODA 방식이 아닌 100% 현지 재정사업으로 수주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그간 한국수자원공사가 쌓아 온 기술력과 국제적 위상을 동시에 인정받은 셈이기 때문이다. 게다가 자원의 보고이자 세계 경제 발전의 구심점으로 주목받고 있는 아프리카와의 비즈니스 파트너십을 강화했다는 데에서 주목할 만하다. 한국수자원공사는 이번 사업을 교두보로 삼아 아프리카, 중동 등의 신흥시장 진출을 본격화하며 국가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창출할 계획이다.

손수 밥을 지어 먹는다는 것은

삼시 세끼 매일 돌아오는 행복할 기회에 충실하겠다는 것이며,
내가 나를 스스로 대접하고 책임지겠다는 것이다.

- 이재호, 『프랑스식 자취 요리』 중에서

Soul Food

마음의



사랑을 부르는 소울푸드

글. 전우영 사회심리학자

마음이 허한 날, 몸이 시린 날

가끔, 멍한 상태로 똑같은 일을 반복하고 있는 스스로를 발견할 때가 있다. 주변에 참 많은 사람이 오가지만, 특별히 따뜻함을 주고받는 사람은 없다. 외롭고 쓸쓸하다. 그때 마다 드는 생각. '내가 좀비 같은 인생을 살고있는 건 아닌가.'

조나단 레빈 감독의 <웜 바디스>에서 사람과 좀비를 구분하는 기준은 체온이다. 사람은 심장이 뛴다. 그래서 사람의 몸은 따뜻하다. 하지만 좀비는 심장이 뛰지 않는다. 그래서 좀비의 몸은 차갑다. 사람은 몸만 따뜻한 게 아니다. 그들은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서로 사랑을 주고받으며 산다. 하지만 차가운 몸을 가진 좀비들은 마음도 차갑다. 그래서 서로 공격하고 물어뜯는다.

흥미로운 점은 이 영화의 가정이 과학적 연구를 통해 검증된 사실과 일치한다는 것이다. 다수의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몸과 마음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어서 서로에게 영향을 미친다. 그 결과, 몸이 따뜻해지면 마음도 따뜻해진다. 반대로 마찬가지로. 우리는 홀로 남겨져서 외로울 때 '옆구리가 시리다'라고 말하는데, 이 말은 단지 은유적인 표현에 불과한 것이 아니었다. 실제로 외롭고 쓸쓸하면 몸도 식으니까. 추울 수밖에 없다.

마음을 녹이는 가장 쉬운 방법

영화 <웜 바디스>는 사랑으로 구원받는 좀비들의 이야기다. 무기력한 일상을 영위하고 있는 좀비들. 알(R, 니콜라스 홀트)도 그 중 하나다. 그는 인간 사냥을 나갔다가 인간인 줄리(테레사 팔머)를 보고 첫눈에 사랑에 빠진다. 알이 줄리를 보자마자 멈춰있던 그의 심장이 다시 뛰기 시작한 것. 좀비와 인간의 사랑은 이렇게 시작한다. 사랑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따뜻한 피가 알의 온몸 구석구석 돌기 시작한다. 그의 몸은 점점 따뜻해진다.

좀비 같은 인생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꿈에 그리던 사랑이 내게로 와준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지만 현실은 영화처럼 훈훈하지 않다. 사람들은 좀비 같은 이에게 관심과 사

랑을 주지 않는다. 사랑을 받으려면 우선, 좀비 상태에서 벗어나야만 한다. 뭐 좋은 방법이 없을까?

가장 간단한 방법은 몸을 따뜻하게 해주는 것이다. 그리고 몸을 데우기 위한 가장 쉬운 방법은 따뜻한 음식을 먹는 것이다. 사실 우리의 무의식은 마음이 차가워지면 몸을 따뜻하게 만들라고 속삭인다. 그래서 외로울 때 자신도 모르게 따뜻한 무언가를 찾게 된다. 한 연구에서 고립된 상황을 경험한 사람들은 얼음이 들어간 시원한 음료보다 뜨거운 커피나 수프를 원했다. 외로움이 유발한 심리적 차가움을 따뜻한 음식을 통해서 완화하려는 무의식적인 행동이다.

만약 그 음식에 추억까지 담겨 있다면, 우리

의 마음을 위로해주는 효과는 훨씬 강해진다. ‘소울푸드(Soul Food)’ 또는 ‘컴포트푸드(Comfort Food)’라고 부르는 음식에는 저마다의 추억이 담겨 있다.

미국의 대표적인 소울푸드는 치킨누들수프다. 집에서 아이들이 감기나 몸살을 앓을 때 어머니들이 만들어주는, 우리로 치면 닭죽 같은 음식이다. 한 연구에서는 몽근한 치킨누들수프에 대해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외로움이 줄어든다는 것을 발견했다. 흥미로운 사실은 이런 효과는 안정적인 애착이 형성된 사람에게서만 나타났다. 따라서 우리의 인생을 위로해주는 소울푸드는 바로 우리를 사랑했던 사람과의 따뜻한 추억을 재료로 만들어지는 것이다.



위로해주는



효과

나의 소울푸드

우리의 인생을
위로해주는 소울푸드는
바로 우리를 사랑했던
사람과의 따뜻한 추억을
재료로 만들어지는 것이다.

* 고로케

올바른 표기법은 ‘크로켓’이지만, ‘고로케’라고 써야 웬지 추억이 되살아나는 기분이다. 어머니는 이 음식을 꼭 ‘고로케’라고 하셨다.

가끔 사는 게 답답할 때, 나는 집 앞에 있는 라면 가게에 간다. 그 집은 라면 국물도 맛있지만, 감자로 만든 고로케*가 별미다. 갓 튀긴 고로케를 달달한 소스에 찍어 먹고, 라면 국물을 후루룩 마시면 어느새 몸은 따뜻해지고, 그 덕분에 마음도 풀리기 시작한다. 고로케는 내 소울푸드 중 하나다. 어머니는 아들이 좋아한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내가 잠들어 있는 새벽에 일어나셔서 바삭하고 따끈한 고로케를 만들어주셨다.

시간이 한참 흐른 후에야 나는 고로케를 만드는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지를 알게 되었다. 사랑해서 할 수 있는 일이었다. 이제는 어머니가 만들어주시는 고로케를 더 이상 맛볼 수 없게 되었지만, 내게는 아직 어머니가 남겨주신 추억이 있다. 덕분에 여전히 집 앞 라면 가게에서 고로케를 먹어도 마음이 따뜻해진다. 갑자기 날 보며 환하게 웃으시던 어머니 얼굴이 떠오른다. 웬지 오늘은 고로케를 먹어야 할 것 같다.

먹보의 나라, 한국의 ‘음식’ 기록

한국인에게 밥은 ‘식사’ 그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 끼니 걱정으로 안부를 대신 묻고, 밥 약속을 하며 다음 만남을 기약한다. 우리는 왜 이토록 먹는 것에 진심일까.

글. 조수빈

“나중에
밥 한 끼 살게.”

“밥
먹을 시간도
없네.”

“금강산도
식후경”

“밥 잘 사주는
예쁜 누나”

“언제
밥
한번 먹자.”

“목구멍에
밥이 넘어가니?”

“밥은 먹고
다니냐?”

“밥 잘 챙겨
먹어”

“뭘
먹고 살지?”

따뜻한 밥 한 끼의 의미

좀처럼 기운이 나지 않을 때 어떤 명약보다 효능이 좋은 것은 바로 ‘밥’이다. 그렇다. 우리는 밥심으로 산다. 한국인과 밥은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다. 밥과 관련된 인사말이나 속담이 많은 건 물론, 생면부지일지라도 어려운 사람을 보면 선뜻 식사를 내어주고, 손님은 배불리 대접하는 것을 ‘정’이라 여긴다. 이렇게 밥에 진심이다 보니 ‘먹보의 나라’라는 귀여운 별명도 있다. 그런데 한국인이 밥의 민족이라는 게 완전히 농담인 건 아니다. 실제로 우리는 대대로 대식가였다. 조선 중기 『쇄미록』에 따르면 당시 성인 기준 한 끼 식사량이 7홉 정도 되었다고 한다. 이는 1.2L 페트병을 가득 채울 정도의 양이다. 뿐만 아니라 『삼국유사』에 기록된 ‘왕은 하루에 쌀 서 말과 꿩 아홉 마리를 잡 수셨는데’라는 대목에서 신분의 차이 없이 모두가 많이 먹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요새
입맛이 없어.”

“밥만 잘
먹더라.”

“한술밥
먹는 사이”

한국인의 피에 흐르는 먹보 유전자

한국인들은 어쩌다 대식가가 되었을까. 우리의 주식은 쌀이다. 쌀농사를 짓는 데는 어마어마한 노동력이 필요하기에 온종일 고된 농사일을 버티기 위해서는 한 끼에 많은 양을 먹어야만 했다. 또한, 예부터 마을 단위로 공동체를 이뤄 서로 힘을 보태며 살았던 한국인에게 맛있는 음식을 나눠 먹고, 고마운 마음을 따뜻한 밥 한 끼로 표현하는 건 당연한 문화였다. 지금까지도 식사 자리에서만큼은 인심이 넉넉해지는 까닭도 우리 모두 공동체 문화를 겪으며 살았기 때문이 아닐까. 이러한 한국인의 먹보 DNA는 SNS를 타고 전 세계 음식 트렌드를 주도하고 있다. 세계 각국의 간식을 한국만의 방식으로 재해석한 ‘K-디저트’ 열풍이 대표적이다. 마카롱은 온갖 재료를 아낌없이 넣어 ‘똥카롱’을 만들고, 크루아상은 와플 팬에 구워 와플처럼 즐기며, 탕후루에는 과일을 통째로 꽂거나 마시멜로 등을 과감하게 추가하는 식이다. ‘먹는 행위’ 그 자체가 콘텐츠인 먹방은 ‘Mukbang’이라는 이름으로 옥스퍼드 영어사전에 등재될 정도로 인기가 많다. 이밖에 상다리가 부러지게 차려지는 ‘한정식’과 언제 어디서든 원하는 음식을 받을 수 있는 ‘배달 서비스’ 또한 한국 식문화의 매력을 더하는 요소다. 이처럼 시대의 흐름에 따라 문화는 조금씩 변하고 있다. 그러나 먹보 유전자가 흐르고 있는 한 우리에게 음식이 곧 힘이고, 정이자 사랑이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

“너 오늘
국물도 없는
줄 알아”

“사랑이
밥 먹여 주니?”

맛있는 냄새가 술술 풍기는 시장에 가면

일렬로 늘어선 상점들 사이에 두고 뒤섞이는 사람들의 발걸음과 가격을 흥정하느라 오고가는 작은 소란, 끝내 한 움큼 더 쥐어 주는 넉넉한 인심까지. 재래시장의 풍경은 이토록 활기차다. 그리고 태백권지사의 다섯 사람이 이 흥겨운 풍경 속에 함께 했다.

글. 조수빈 사진. 황지현



태백권지사

박민수 차장, 김다현 대리
김상우 대리, 박민규 사원
원재희 사원



오늘은 출장 대신 여행 가자!

2월 13일. 며칠 전부터 원재희 사원은 딱 이날만을 손꼽아 기다려왔다. 바로 동해 북평오일장이 열리는 날이기 때문이다. 오일장 중에서도 규모가 크기로 손에 꼽히는 북평오일장은 날이면 날마다 갈 수 있는 곳이 아니다. 매달 3, 8일에만 장이 서기 때문에 날짜를 잘 맞춰 가야 한다. “동해에 자주 오다 보니 북평오일장을 한 번은 구경했을 법한데, 아직 한 번도 제대로 둘러본 적이 없어요. 늘 시간에 쫓겨 제대로 구경하지 못했거든요.” 사실 남들은 바다 보러, 일출 보러, 시장 구경하러 방문하는 동해가 태백권지사 직원들에게는 출장지로 더 익숙한 곳이다. 태백권지사서 동해 달방댐의 유지·관리와 지자체, 인근 공업단지로 원수 공급을 책임지고 있어 설비 점검 등을 위해 이곳을 자주 방문하고 있지만 정작 이름난 관광지는 제대로 즐겨본 적이 없던 실정. 아쉬웠던 차에 원재희 사원이 여행의 판을 깬 것이다. 원재희 사원의 제안에 모두 한마음으로 떠올린 단어는 ‘드디어’란다.

“모두가 같은 마음이었을 거예요. 동해로 출장 갈 때마다 ‘언제 한번 날 잡아서 맛있는 음식도 먹고 좋은 풍경도 보고 오자~’라고 했지만 기회가 없었거든요. 이번에 드디어 동료들과 특별한 추억을 쌓을 수 있을 것 같아 기대돼요.”라며 김다현 대리가 설렘을 전했다.

오늘만큼은 지치지 않을 거예요

사실 다섯 사람은 북평오일장으로 오기 전 동해 맛집에 들러 점심식사도 거나하게 하고 왔다. 배를 통통 두드리면서도 “간식 배는 따로 있어요!”라는 이들. 본격적인 ‘먹부림’을 하기 전 먹을 계획을 세우기 위해 시장을 한 바퀴 둘러보기로 했다. “여기 먹을 게 진짜 많거든요. 오늘 제가 다니는 코스를 하나씩 소개해



드릴게요”라며 선두에 선 사람은 김상우 대리다. 그는 평소에도 주말에 장이 서면 꼭 이곳을 찾는다고 했다. “상우 대리님은 ‘맛잘알맛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맛집도 많이 알고 저희가 모르는 음식도 많이 접해보셨더라고요. ‘백골뱅이 내장’이라는 음식도 상우 대리님께 처음 들었어요. 음식 설명도 기가 막혀요. 실감나게 표현하는데, 듣고 있으면 제가 직접 먹고 있는 것 같다니까요”라며 박민규 사원이 김상우 대리를 치켜세웠다.

가장 먼저 이들의 발걸음을 사로잡은 건 달달한 호떡 냄새였다. 사장님께 다가가 “호떡 다섯 개만 주세요”라면서도 박민규 사원의 눈은 다른 간식들은 없나 살펴보느라 바빠 보였다. 노릇하게 구워진 호떡을 채 먹기도 전에 도넛 가게 앞에 선 이들. 원재희 사원은 이번 여행을 오기 전부터 ‘참쌀 도넛은 꼭 먹자’라며 말했었다. “일을 하다 보면 꼭 두세 시쯤 되면 달달한 간식이 생각나는데, 그때 도넛이나 파배기 같은 게 먹고 싶더라고요. 시장에 온 김에 참쌀 도넛을 먹고 가야죠.” 간식뿐만 아니라 한눈에 보기에도 신선한 해산물, 건어물, 청과물 등 시장에 준비한 식재료들을 구경하는 재미도 쏠쏠한 듯 걸음을 늦춰갔다. 그러던 중 “저기 코너를 돌면 국숫집이 있거든요. 양도 많고 맛있는데,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무한리필’이라는 거예요. 아는 사람들만 아는 포인트죠”라며 ‘찹찹박사’ 김상우 대리가 이들을 국숫집 안으로 이끌었다.



시장에 왔다면 간식을 여러 개 먹고 가야 제대로 즐긴 기분이에요. 북평오일장에 오시면 입구에서 파는 붕어빵을 들고 구경을 시작하길 추천합니다.

김상우 대리의 선택

크로켓



북평오일장에 오면 ‘호산빵집’에 꼭 들러 보세요. 참쌀 도넛과 파배기도 맛있지만 저는 크로켓을 강력 추천합니다. 오늘도 여기 오기만을 기다렸다고요.



동료에 맛집 태백권지사의 비결

이후에도 붕어빵, 뽕튀기 등 먹부림은 이어졌다. “와, 이제는 진짜 못 먹겠어요!”라며 박민수 차장이 가장 먼저 백기를 들었다. 그의 말에 나머지 직원들이 술술 여행을 마무리할 준비를 시작했다. 그러면서도 못내 아쉬운 듯 박민규 사원은 “입가심으로 식혜 딱 한 잔만 먹을까요?”라며 동료들을 잡아 이끌기도 했다. 김상우 대리는 마지막으로 꼭 들러야 할 곳이 있다며 동료들을 멈춰 세웠다. “여기는 제가 동해에 출장 올 때마다 들르는 빵집이에요. 크로켓 맛집인데 안에 감자가 가득 들어있어서 진짜 맛있어요. 몇 번 동료들에게 맛보여준 적 있는데 디들 좋아하더라고요.”라며 통 크게 크로켓 서른 개를 포장했다. 양손 가득 크로켓을 들고 나서야 이들의 여행은 마무리됐다.

박민규 사원의 선택

만두



여기는 만두가 진짜 맛있어요. 제가 가장 좋아하는 음식이 ‘만두’라 그런 게 아니고, 진짜 입 안에서 터지는 고기 육즙과 새콤한 김치, 아삭한 채소들까지 완벽하거든요.



원재희 사원의 선택

호떡



어느 시장을 가든 호떡이 진리죠. 북평오일장에서도 걷다 보면 호떡 파는 곳을 쉽게 볼 수 있는데 어디서 먹어도 맛있어요. 걸바속속 따끈하고 달달한 호떡, 누가 싫어하죠?



김다현 대리의 선택

잔치국수



시장 안쪽 골목에서 파는 잔치국수가 ‘짬’입니다. 한 그릇에 오천 원인데 양도 진짜 푸짐해요. 국수 한입 먹고 따듯한 국물까지 호로록 마시고 나면 얼마나 든든해지게요.



양주수도지사 이지원

일주일에 3회 이상 국밥을 먹지 않으면 마음이 너무 허해져요. 국밥부장관으로서 단 하나의 음식을 고르려면 저렴한 가격에 배를 든든히 채워주는 국밥을 선택하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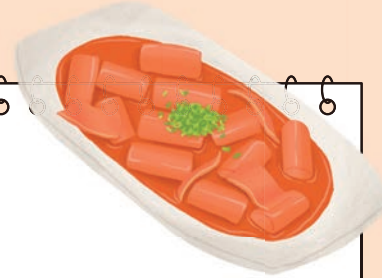
수자원운영처 남윤천

김치찌개와 스펀, 달걀, 조미김은 자취생이나 신혼부부에게 필수식단 같은 느낌이지요. 누구나 호불호 없이 언제나 맛있게 먹을 수 있는 집밥 정식을 선택할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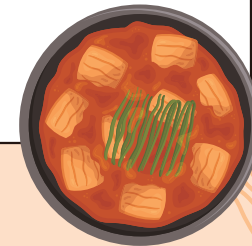
금강유역협력단 권보민

떡볶이는 언제나 좋습니다. 화가 나거나 짜증 나거나 슬프거나 우울한 날에는 나를 위로해주고, 행복하거나 즐거운 날에는 나를 더 기쁘게 만들어 주는 갯떡한 떡볶이. 매일 먹어도 좋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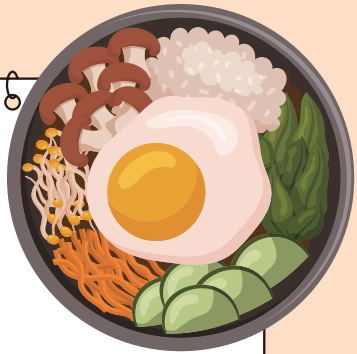
청송권지사 오재형

저는 시골에 살아서 도시 음식(?)을 많이 접해보지 못했거든요. 그러다 대구의 친척 집에 놀러 갔을 때 처음 '김치나베'라는 음식을 먹어 보았습니다. 달달한 김치찌개에 두툽한 돈가스가 올라간 환상의 음식은 단번에 제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여전히 밥도둑 김치나베에 푹 빠져있는 만큼 평생 하나의 음식을 먹어야 한다면 역시 '김치나베'를 먹을 것 같아요.



디지털보안처 박민아

엄마가 만들어 준 비빔밥을 먹었습니다. 재료 하나하나에 담긴 사랑과 정성은 물론 건강까지 챙길 수 있는 완벽한 음식이니까요.



평생 한 가지 음식만 먹어야 한다면?

영화 <올드보이> 속 주인공 오대수는 15년을 군만두만 먹고 살았다. 만약 나도 한 가지 음식만을 먹고 살아야 한다면 무엇이 좋을까? 이 세상의 많고 많은 음식을 앞에 두고 고민에 빠진 한국수자원공사 직원들의 의견을 들어 보았다.

정리. 편집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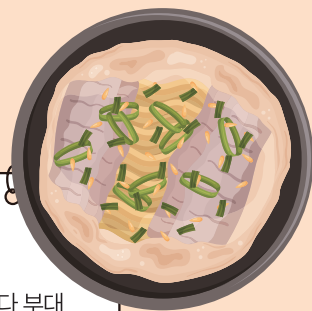
거제권지사 박대하

탄·단·지 완벽하고, 재료에 따라 맛도 확확 변하는 최강의 음식. 김밥이라면 평생까지는 몰라도 한 달은 버틸 수 있을지도?



낙동강사업처 이우진

군대에서 휴가를 나올 때마다 부대 앞에서 빠다귀해장국을 먹었습니다. 주인 아주머니께서는 군인이었던 제게 항상 양을 두 배로 주셨어요. 나라를 지킬 수 있었던 원동력이었던 소울푸드, 해장국이면 됩니다.



한국수자원공사 직원들의 선택 응답지수:53명

절대 잃을 수 없는
나만의 소울푸드
49%

영양소가 완벽한
슈퍼푸드
38%

과일, 계란, 구황작물 등
간편식
7%

케이크, 커피 등
디저트
6%

재무관리처 윤정호

직장인의 필수 부스터, 커피를 빼놓고는 직장생활을 논할 수 없다! 남은 인생도 커피로 활력 충전할래요!



낙동강사업처 이희형

케이크를 선택하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데는 행복한 기억들이 참 중요하다고 해요. 케이크를 먹으면 누군가를 축하하거나, 제가 축하받았던 일들이 많이 떠올라요. 그래서 '기쁨의 음식' 케이크를 먹겠습니다.



동두천수도지사 김형욱

평소 회를 정말 좋아하는데, 아내가 임신 중이라 회를 못 먹고 있어요.(ㅠㅠ) 평생 한 가지만 먹는다면 회를 마음껏 먹고 싶네요. 육회, 참치회, 활어회 뭐든요!



계절을 기다리는 시간

광양

광양의 제철소는 익히 알지만 이곳의 수려한 강산과 나무는 잘 모르는 이가 많다. 겨울에서 봄으로 걸어가고 있던 광양과 마주했다.

글, 사진, 박재현 소설가



견학 프로그램을 통해 광양제철소 내부를 둘러볼 수 있다. 평일엔 10인 이상의 단체 견학, 토요일엔 개인이나 10인 이하 견학만 가능하다. 다만, 3월에는 평일 견학을 제한하고 있다.

광양제철소

당신의 뜨거움

굴뚝에서 나오는 하얀 연기가 멀리서도 보였다. 연기는 푸른 하늘 위를 마음껏 스케치했다. 바다 위의 독보적인 활기였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을지 상상케 했다. 용광로를 꺼뜨리지 않기 위해선 매일 같이 모두의 땀이 필요하겠지. 내 안의 뜨거움은 쉬지 않고 가동되고 있는지 자문해 보았다. 누구나 저마다의 뜨거움이 있지 않은가. 제철소가 광양을 든든하게 지키고 있다면, 광양의 앞바다를 지키고 있는 건 이순신대교였다. 밤이 되자 불이 켜져 특별한 야경을 선사했다. 바다 위에 떠 있는 이들의 빛은 광양의 밤을 더욱 뜨겁게 만들어 주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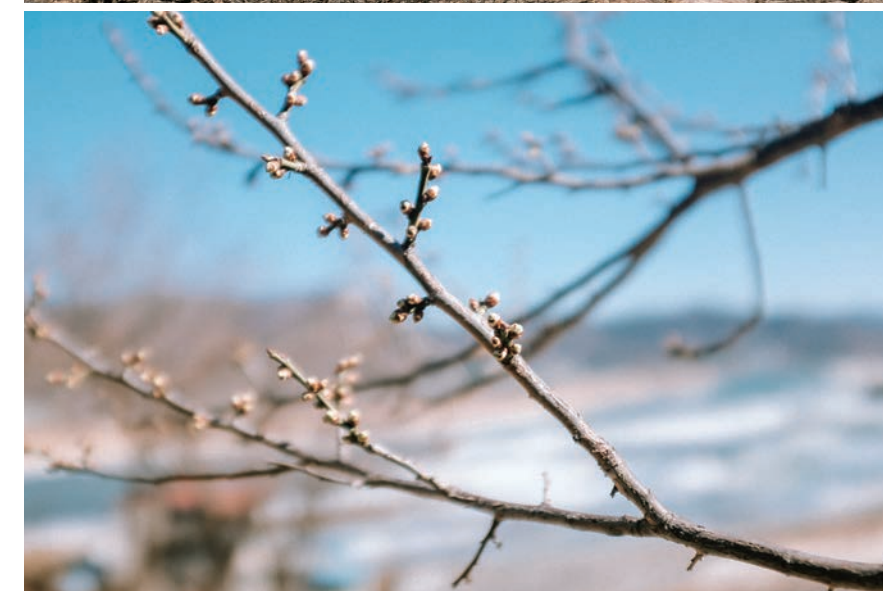




광양매화마을

가지 위의 봄

마른 가지로 자욱했다. 봄이면 매화로 가득 차는 이곳에 아직 봄이 오지 않아서였다(책이 나올 때쯤 매화는 만개하겠지만). 가지 위에선 수많은 봄이 움트고 있었다. 바람을 건디고 추위를 건디면서. 계절의 변화는 우리의 생을 조금 흔들고 마는데, 그 과정이 때론 의미 있는 것이 아닐까. 그중 제일은 봄일 것이다. 기다림의 마음이 가장 크기 때문이다. 마침 매화의 꽃말은 '고결', '인내'다. 고결하게 인내하고 있는 매화를 기다려줄 수밖에 없다. 기다림 끝에 올라올 매화들은 어떤 얼굴로 우리를 마주할까. 마을 앞에 청명하게 흐르고 있는 섬진강은 답을 알고 있을 것만 같았다.



올해 매화 축제는 3월 7일부터 16일까지 열린다. 매실 하이볼, 마스크트 매돌이 굿즈샵, 인생네컷 포토존 등 다양한 콘텐츠를 운영할 계획이다.



배알도 섬 정원에 가기 위해서는 망덕포구에서 별 헤는 다리를 건너거나 배알도 수변공원에서 해맞이다리를 건너면 된다. 섬진강 별빛스카이 질와이어를 타고 좋다.

배알도 섬 정원

만남이 있는 섬

섬은 때때로 이유 없이 끌리지만 이동에 따른 부담이 있기에 큰마음을 먹어야만 가게 된다. 이곳엔 다리가 있어 쉽게 걸어갈 수 있었기에 부담이 없었다. 다리엔 물고기 모양의 주탑과 곡선 길이 있어 걷는 즐거움을 더해 주었다. 섬은 자그마했다. 뒤꿈치부터 느긋하게 디디며 산책하기에 알맞았다. 계단을 오르니 소나무들이 사방에서 지키고 있는 정자가 보였다. 거기서 밖을 둘러봤다. 어린 시절, '강은 어떻게 바다로 흘러갈까' 그려 보곤 했는데 상상했던 장면을 처음 만났다. 이곳은 머나먼 길을 달려온 섬진강과 남해가 만나는 지점이다. 그리고 보니 나를 이렇게 품어 주는 인연을 만나는 것도 늘 기다림 끝에야 있지 않나 싶었다.



치유의 숲 센터에서 산림 치유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또한 센터 내부엔 요가실, 족욕장, 아로마테라피실, 피톤치드 카페 등이 있다.

백운산 자연휴양림

나무처럼 크고 싶어

거인들의 숲에 오면 이런 기분일까. 나무들의 키가 대체로 컸다. 머리를 최대한 젖혀야 끝이 보였다. 숲은 말이 없었지만 내가 큰 소리를 내면 사방으로 나의 말을 전해줄 것처럼 깊었다. 깊은 데다 넓기도 했다. 거대한 자연이 좋은 건 인간이 작다는걸 새삼 깨닫게 하기 때문이다. 걸으며 나무들이 커 간 시간들을 상상해 보았다. 날씨가 좋을 때 성장의 폭이 컸겠지만, 차디찬 겨울을 보낸 뒤에야 더 단단해졌을 것이다. 나무가 뱉는 숨을 깊게 들이마시며 생각했다. 위로 크는 만큼 땅 아래로도 자라는 나무처럼, 몸뿐만 아니라 마음도 크는 존재가 되고 싶다고.



활색 매력 도시 광양으로 가자

글. 조수빈 사진. 박갑순 그림. 위든(witheun)

광양은 숨은 매력이 가득한 도시다.
가 보지 않고서는 절대 알 수 없는 광양의
다채로운 매력을 소개한다.



인서리 공원



일상을 예술로 물들이다

소생하는 봄의 기운을 서둘러 느끼고 싶다면 인서리공원으로 향해 보자. 광양시 광양읍 일대의 크고 작은 한옥을 재해석한 인서리공원에는 공간마다 아가자기한 이야기들이 깃들여 있다.

입구에 들어서면 가장 먼저 상반된 분위기의 두 건물 이 보인다. 정면에 보이는 회색 건물은 갤러리이며, 오른쪽의 한옥은 카페다.

'반창고'라는 이름의 갤러리는 폐창고를 리모델링한 공간으로 지역 작가들의 섬세한 예술성을 만날 수 있는 곳이다. 현재는 <유쾌한 봄>이라는 주제 아래 흑독했던 겨울을 잘 버텨온 이들에게 위로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 전시는 오는 4월 30일까지 진행된다.

'카페 Aat'에는 음료는 물론 식사나 와인도 함께 준비되어 있는데 고즈넉한 한옥 분위기를 만끽하고 싶다면 키타마 자리에 앉기를 추천한다. 이밖에 푸드마켓 아트숍 등이 군데군데 스며있으니 한 곳도 놓치지 말 것. 여러 작가들의 작품부터 기념품이 될 만한 굿즈를 구경하는 재미도 쏠쏠하니까.

이곳에서는 예술을 그저 관찰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직접 체험해보며 일상을 예술로 물들일 수 있다. 비정기적으로 아트마켓이나 클래스를 진행하고 있으며, 마치 인서리의 마을 주민처럼 하루 머무를 수 있도록 한옥 스테이 또한 운영하고 있다. 한옥 스테이는 한옥을 보다 힘하게 재해석한 '훼경당', 모던한 느낌의 '예린의 집', 100년된 고택의 정취를 고스란히 담아낸 '다경당' 등 총 세 곳으로 이뤄져 있으니 취향에 따라 선택하면 된다.



📍 위치 전라남도 광양시 광양읍 남문길 65

🕒 운영 공간별 상이, 홈페이지 참고
(<https://inseori01.com>)

☎ 문의 061-761-6701



광양 와인동굴

📍 위치 전라남도 광양시 광양읍 강정길 33
🕒 운영 매일 09:30~18:00
☎ 문의 061-794-7788

와인향이 퍼지는 신비의 동굴

광양와인동굴은 1987년까지만 해도 비릿한 쇠 냄새만이 가득했던 곳이었다. 1913년부터 약 70년간 제철화물을 운송하던 길목이던 이 터널은 광양제철선 개량화사업에 따라 폐선되면서 '광양와인동굴'이라는 이름 아래 와인을 즐길 수 있는 문화공간이 되었다. 터널로 들어서면 가장 먼저 와인의 이론을 알 수 있도록 기원과 역사 등이 부조 벽화로 새겨져 있으며, 벽화를 지나면 환상의 빛 터널과 각도에 따라 신비로운 체험을 할 수 있는 트릭아트 포토존 등이 등장해 재미를 더한다. 뿐만 아니라 와인 카페나 족욕 공간에서는 와인의 향긋함 속에서 낭만을 즐길 수도 있다.



낮선 와인의 세계로 좀 더 깊숙이 들어가 보고 싶다면 체험 프로그램에 참여해 보자. 특히 광양의 특산물인 매실을 이용한 '매실와인 만들기' 수업에서는 와인 제조과정부터 발효과정까지 자세히 배우는 건 물론, 세상에 하나뿐인 나만의 와인을 만드는 특별한 경험도 할 수 있다. 다만, 프로그램은 사전 예약이 필수이니 관심 있다면 홈페이지를 통해 미리 신청하는 것을 잊지 말자. 광양와인동굴의 모든 공간을 둘러 보는 데는 약 2시간 정도가 소요된다. 동굴을 둘러 보는 동안 와인에 흥미가 생겼다면 나가는 길에 판매점에 들러 취향에 맞는 와인을 한 병 구매해보는 것도 좋다.

섬진강 별빛스카이

📍 위치 전라남도 광양시 진월면 망덕길 159
🕒 운영 매일 09:00~18:00
☎ 문의 061-772-8980



섬진강 위를 나는 꿈의 비행

망덕산과 배알도 수변공원을 잇는 섬진강 별빛스카이가 광양의 새로운 랜드마크로 떠오르고 있다. 두 곳 사이에는 짚와이어가 설치되어 있으며 그 덕분에 이곳에서는 종일 짜릿한 함성이 울려 퍼진다. 망덕산 해발 197m에 위치한 짚와이어 탑승장에 가기 위해서는 제법 아찔한 경사를 올라야 하는데 다행히 모노레일이 운영중이다. 모노레일은 망덕포구에서 출발하며 오전 10시부터 20분마다 운영하니 시간을 미리 체크하고 가기를 추천한다. 열차가 오르는 동안 조금씩 모습을 드러내는 광활한 풍경에 마음을 뺏겨 있다 보면 금세 탑승장에 도착한다. 부푼 설렘을 가득 안고 출발선에 서면 멀리 섬진강에 흩뿌려진 운

슬과 군데군데 모습을 드러낸 섬들, 이순신대교의 모습까지 한눈에 들어온다. 이 낭만적인 광경을 충분히 눈에 담았다면 이제는 꿈의 비행을 떠날 차례. 숨을 깊게 들이쉬고 발을 떼면 짜릿한 질주가 시작된다. 짚와이어는 망덕산에서 출발해 별 헤는 다리, 배알도 섬 정원, 해맞이 다리까지 약 898m를 지나 배알도 수변공원에 도착한다. 눈 깜짝할 사이에 그간 쌓인 스트레스를 짊고 꺾기 떨어버릴 수 있다. 짚와이어의 도착지점인 배알도 수변공원에서 매표소까지는 픽업 차량이 운행되고 있는데, 도보로 20분 정도 걸리니 날씨가 좋은 날에는 산책 삼아 걸어오는 것도 나쁘지 않다.





한 뿔 남짓한 칼날이 한이 서린 듯 매섭게 빛난다. 그러면서도 어딘가 고결하고 유려하다. 박종군 장도장의 손끝에서 탄생한 장도는 한마디로 예술적이다. 곧게 뻗은 칼날 위를 걷듯 오로지 한 길만을 걸어온 박종군 장도장의 인생을 이야기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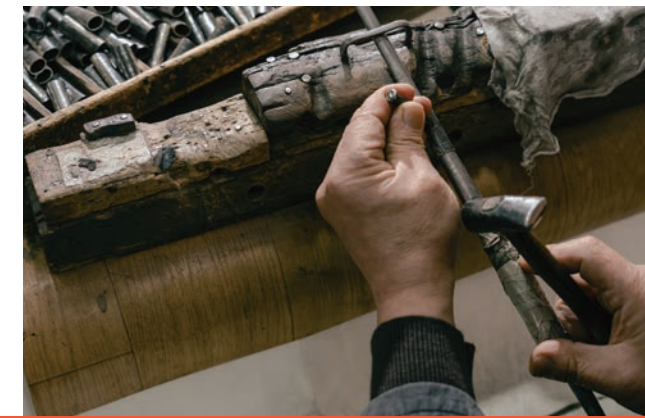
박종군 장도장

날카로웠고 빛났다



오로지 칼끝을 따라온 인생

글. 조수빈 사진. 박재우



아버지를 따라 칼을 잡다

두 눈을 부릅뜨고 은장도를 자신의 목에 들이대는 한 여인. 이처럼 사극 속에서 장도는 대체로 '지조'나 '자결' 등의 의미로 등장한다. 그러나 단순히 '순결용', '자결용'으로만 쓰이는 건 아니다. 예로부터 우리나라에서 장도는 예술품에 좀 더 가까웠다. 그 사실을 박종군 장도장은 일찍이 알고 있었다. 그의 아버지故박용기 용은 우리나라 최초로 장도장으로 중요무형문화재에 오른 인물이다.

“아버지께서 어릴 때부터 장도를 좋아했다고 하더라고요. 장도 만드는 모습에 반해 뻘질나게 동네 장도 공방을 드나들었대요. 그길로 장도장이 되셨고요. 그러니 저에게도 장도는 어릴 때부터 익숙한 존재였죠. 그것들이 너무 예뻐서 장난감처럼 갖고 놀았던 기억도 나요.” 그렇지만 당시 장도 만드는 일이 크게 밥벌이가 되지는 못했다. 늘 고생하는 부모님을 보면서 어느 때는 장도가 싫기도 했다. 그럼에도 장도장의 길을 걷게 된 건 아버지의 손을 덜기 위해서였다. “아버지께서 늘 고생하는 모습이 마음에 쓰였어요. 그래서 장도장이 되겠다고 말씀드렸죠. 아버지의 길을 따르겠다고 마음먹은 뒤로는 죽자 살자 했어요.” 어쩌면 의무감일지도 몰랐다. 그러니 장도 만드는 일이 재미있었을 리가 없었다. 이십 대 중반이 되어서야 그 재미에 눈을 떴단다. “아버지의 문하생으로 몇 년을 지내다 보니 ‘내 작품’이랄게 없었거든요. 늘 돕기만 했으니까요. 그러다 대학을 졸업하고 제 작품을 대회에 출품해 상을 받은 거예요. 처음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은 거라 기분이 묘하더라고요. 소질이 있구나, 싶으면서 심장이 뛰는 게 느껴졌어요.”



정성을 새기는 일

박 장도장은 매일 풀무질을 해 불을 키우고, 활비비나 보래 등 이름도 낯선 공구로 칼자루에 구멍을 뚫고, 칼집을 깎고, 도신을 간다. 무려 177개의 공정을 거쳐야만 한 뿔 남짓한 작은 장도가 완성된다. 금, 은, 옥, 나무 등 다루는 재료도 수십 가지나 된다. 그래서 장도는 종합예술이다. “어느 하나만 잘해서 좋은 장도를 만들 수 없죠. 하나라도 완성도가 떨어지면 균형이 깨져 버리거든요.”

장도를 만드는 동안에 사람의 손길이 닿지 않는 순간은 없다. 그렇기에 누가 만드느냐에 따라 그 색깔과 개성이 담기기 마련이다. 아버지인 박용기 옹은 대체로 남겨진 유물이나 골동품들을 복원하는 데 집중했었다. 박 장도장은 여기에 ‘다양성’이라는 색을 넣었다. 조금 더 다채로운 재료를 사용해보고 이제는 텍스트로만 남아있는, 대가 끊어진 기술을 연구해 구현하기도 했다. 게다가 실험정신도 있었다. **“과거에는 사람들의 체구가 작았잖아요. 키가 150cm면 보통 체격이었으니까요. 지금은 키도 손도 커졌으니 장도의 크기도 변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과거에는 장도가 허리춤에 차고 다니는 ‘장신구’였다면, 지금은 소장하는 ‘예술품’에 더 가깝잖아요. 그러한 시대의 흐름을 해석해 장도를 만들었죠. 전통예술 분야에서는 과감한 시도들이었어요.”** 자기만의 길을 걸으면서도 ‘장도’라는 길에서는 한 치도 벗어나지 않았다. 우직하게 한 길을 걸어온 덕분에 박종군 장도장은 48세의 나이에 국가무형문화유산에 이름을 올렸다.



한국의 전통을 어깨에 짊어진 장인

박 장도장은 국가무형문화유산이면서 광양장도박물관의 관장이기도 하다. 그와 아버지인 박용기 옹의 손에서 탄생한 광양장도박물관. 그가 이곳을 만든 이유는 장도를 사람에게 소개하겠다는 마음도 있었지만, 사실 그보다 더 큰 이유는 바로 아들들 때문이었다. “제 시대에는 장도 만드는 일이 힘들다는 게 당연했어요. 그런데 언제까지 척박하게 둘 수는 없잖아요. 장도 작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야 다음 세대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아버지와 고민한 끝에 전시동, 생활동, 작업동이 갖춰진 광양장도박물관을 짓게 되었죠.” 그의 마음을 안다는 듯 두 아들도 기꺼이 장도의 길을 걷기 시작했다.

그는 두 아들뿐만 아니라 많은 전수 장학생의 스승으로 길을 안내하는 중이다. 장도장이 되려면 어떤 기술을 연마하는 것이 좋을까. 섬세한 손놀림일 수도, 날카로운 눈빛일 수도, 아름다운 예술성일 수도 있겠다. 그러나 그의 생각은 조금 달랐다. **“좋은 장도장은 ‘철학’이 있어야 해요. 이 길을 끝까지 가겠다는 인내심, 우리나라의 정신을 계승하겠다는 사명감, 때로는 무언가 포기할 줄도 아는 희생정신 같은 자기만의 중심이 굳게 서 있어야 하죠. 기술은 같고 닦는 대로 늘기 마련이거든요. 기술자와 장인을 가르는 게 ‘철학’이에요.”** 박 장도장의 기술력이야 우리나라 최고라는 건 말할 것도 없고, 대화 속에서 견고한 철학마저 느껴졌다. 달리 국가무형유산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다.

어릴 적부터 자신이 가야 할 길을 확실하게 알았다고 말하는 박종군 장도장. 그의 눈빛은 칼날처럼 날카로웠고 빛났다. 마치 아직도 가야 할 길이 남았다는 듯이.





매실장아찌

김밥

마음이 제멋대로 설레버리는 계절.
괜히 어디론가 떠나고 싶다면 일단 도시락을
싸 보자. 우리를 봄으로 데려다줄 메뉴를
소개한다. 주인공은 초록빛 매실이다.

글. 편집실 그림. 결(Gyeol)



한입에 담기는 봄의 맛

우리나라 봄의 서막을 여는 광양의 매화마을은 전국에서도 이름난 봄꽃 나들이 명소다. 그러나 광양의 매실이 유명한 건 당연한 이야기. 광양에서 나고 자라는 매실은 따사로운 남쪽의 햇살과 섬진강의 맑은 물, 질 좋은 토양의 영양분을 마음껏 먹고 자라 여느 곳의 매실보다 향과 맛이 진하다. 그중에서도 과육이 단단하고 새콤한 맛이 강한 청매실이 유명하다.

매실을 음식으로 즐기는 법은 간단하다. 가장 쉬운 방법은 청을 담가 음료를 만드는 것. 이밖에 장아찌로 만들거나 고추장에 무치면 새콤한 밥도둑이 된다. 그러나 장아찌류는 호불호가 나뉘는 반찬이다. 그럴 땐 약간의 눈속임이 필요하다. 매실장아찌 맛이 튀지 않도록 다른 재료들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김밥을 싸 때 매실장아찌를 조금 넣어 보자. 오독오독 재미있는 식감뿐만 아니라 새콤한 끝 맛이 침샘을 자극하는 매실장아찌 김밥이 완성된다. 상큼한 맛이 봄과 꽤 잘 어울리니 나들이 도시락 메뉴로도 추천한다.

재료

김, 밥, 매실장아찌, 어묵, 당근,
시금치, 달걀, 우엉조림, 고추장,
참기름, 깨소금

매실장아찌 담그기

씨를 제거한 매실을 깨끗하게 세척한
다음, 매실과 설탕을 1:1 비율로 차곡차곡
쌓아 밀봉하면 끝! 하루 숙성하면 새콤한
매실장아찌가 완성된다.

레시피

1. 시금치를 뜨거운 물에 살짝 데친 후 식혀둔다.
2. 어묵, 당근을 채 썬 후 볶아주고, 달걀은 지단을 만든다.
3. 매실장아찌를 잘게 썬 후 물기를 꼭 짠다.
4. 참기름, 소금 등으로 밀간한 밥을 김 위에 얇게 펴 올린다.
5. 재료를 밥 위에 하나씩 가지런히 올린다.
이때 매실장아찌를 고추장에 무쳐 넣으면
매콤한 감칠맛이 더해진다.
6. 김밥을 잘 말아 한입 크기로 썰어주면 완성!

나의 자랑 나의 힘 아산권지사

글. 조수빈 사진. 황지현 영상. 노재준

수타벅스가 오기만을 손꼽아 기다린
이들이 있다. 특별히 자랑하고픈 게 있기
때문이다. 바로 '나의 동료들'이다. 서로를
향한 각별한 사랑을 느낄 수 있었던
아산권지사로 수타벅스가 간다!



따로 또 같이 달려나가는 사람들

아산권지사의 업무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아산정수장 관리부는 아산, 당진, 평택 등의 지자체와 인근 주요 산업단지로 연간 1.4억 톤 이상의 생활용수 및 공업용수를 공급하고 있으며, 아산신도시물환경센터는 아산 탕정지역의 생활하수 처리를 맡고 있다.

‘아산권지사’라는 한 지붕 아래 있지만 사실 아산정수장과 아산신도시물환경센터는 약 17km 정도 떨어져 있다. 거리가 먼 데다 맡은 업무가 다르다 보니 서로를 챙기기가 쉽지 않은 게 사실이다. 그럴수록 소통을 더 활발하게 해야 하는 법. 이들은 분기별로 체육행사 등 전 직원이 한자리에 모일 수 있는 활동을 마련해 조직문화를 탄탄하게 다지고 있다.

한번은 김윤정 센터장이 직원들을 위해 깜짝 이벤트를 준비하기도 했다. 양희연 대리는 “한창 업무로 바빴던 시기에 직원들을 격려해 주시겠다며 김윤정 센터장님께서 직접 제주도에서 방어, 흑돼지, 굴 등을 공수해 오셨어요. 전 직원이 모여 맛있는 음식을 함께 먹으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동안 업무 스트레스를 날리고 다시 달려갈 힘을 얻었죠.”라며 그날의 행복을 회상했다.

이처럼 직원들을 세심하게 챙기는 임종헌 지사장, 김윤정 센터장을 필두로 모두가 하나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렇기에 아산권지사의 직원들은 서로 다른 자리에서도 보이지 않는 동료애로 끈끈하게 이어져 있다.



QR코드를 스캔하여 수타벅스와 함께한 아산권지사의 즐거운 모습을 만나 보세요.



수타벅스는 처음이지만 단합은 익숙해서

이렇듯 동료들과 한자리에 모이는 일이 익숙한 이들도 수타벅스는 처음이다. 수타벅스 이벤트를 남몰래 준비한 건 황지혜 인턴이다. 그는 동료와의 이별을 앞두고 있다. “2월 말이면 인턴 기간이 종료되는데, 그간 선배님들께 정말 많은 걸 배웠거든요. 선배님들의 사랑에 어떻게 보답해야 할까 고민이 많았어요. 헤어지기 전에 ‘수타벅스’라는 특별한 경험을 선물해 드릴 수 있어서 기뻐요.”라며 괜히 마음이 쩡해지는지 눈시울을 붉혔다. 그런 그를 흐뭇하게 바라보던 조민우 과장은 “지혜 인턴이 평소에도 재미있는 일을 많이 벌이거든요. 이번에는 또 이렇게 저희를 놀라게 해 주네요.”라고 말했다.

이벤트가 시작될 시간에 맞춰 모든 직원들이 한자리에 모였는데 예상치 못한 손님 또한 함께 찾아와버렸다. 제법 큰 눈발이 날리기 시작한 것. 추운 날씨에 모두 코끝이 빨개졌지만, 이들은 그마저도 즐거운 듯 보였다.

이번 수타벅스에는 음료뿐만 아니라 비타민을 충전할 수 있는 과일까지 준비됐다. 서로 좋아하는 과일을 나눠 먹기도 하고, 혼자 사는 직원들은 평소 과일 먹기가 힘들다며 더 챙겨주기도 하는 정겨운 모습이 이어졌다. 굴을 먹던 임종헌 지사장은 “갑자기 예전 생각이 나네요. 센터장님이 사다 주셨던 제주도 굴이 참 맛있었거든요. 동료들과 함께 나눠 먹어서 더 맛있었던 거겠죠? 이런 자리를 또 갖게 해준 수타벅스 감사합니다!”라며 손을 흔들었다.

시간이 지날수록 이들 사이의 행복이 무르익는 듯했다. 업무는 물론 함께 일상을 나눈 모든 순간이 소중하다는 이들 사이에서 이른 봄이 느껴졌다.



● interview ●

잊지 못할 행복한 기억입니다

mentor 품질운영팀 조민우 과장

아산권지사의 활력소 지혜 인턴! 똑 부러지는 성격으로 어디서든 잘 할 수 있을 거라고 믿어요. 고생 많았어요~

아산신도시물환경센터 **황지혜 인턴**

선배님들과 함께 커피를 마시고 사진도 찍다 보니 그간 함께했던 즐거운 추억들이 생각나 몽클해지더라고요. 아산권지사에서 좋은 기억만 가지고 갑니다. 모두 감사합니다!



순수 우리 기술 경쟁력에 날개를 달다

초순수 기술 검·인증 기반 구축

지난해 12월 한국수자원공사가 국내 최초로 국산 기술로 생산한 초순수를 반도체 웨이퍼 제조시설에 공급했다. 연이어 초순수의 검·인증 공동개발 3자 업무협약을 체결하며 초순수의 경쟁력 굳히기에 나섰다.

글. 편집실 자료. 한국수자원공사



국가 경쟁력을 위해 손을 맞잡다

지난 2월 4일 한국수자원공사와 한국표준과학연구원, 한국물기술인증원이 '초순수 기술 검·인증 기반 구축'에 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국산 초순수의 품질과 신뢰 수준을 강화하여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초순수는 반도체 생산의 필수재로 쓰이는 까닭에 첨단산업의 생명수로 통하고 있지만, 생산 시 20단계 이상의 고난도 공정이 필요할 만큼 생산하기가 까다로운게 현실. 이에 지금까지 초순수는 설계·시공 운영에서부터 소재·장비 등의 생산기술까지 유럽, 미국, 일본 등의 일부 국가에서 독점해왔다. 현재 초순수 생산기술의 국산화 이후 상용화를 앞두고 있으나, 반도체 공정에 투입할 초순수 품질인증은 국내 공인기관이 없는 탓에 여전히 해외에 의존하고 있으며, 신기술 개발에도 즉각 시장진출에 속도를 높이기 어려운 환경이다.

이번 협약을 통해 한국수자원공사, 한국표준과학연구원, 한국물기술인증원은 각 기관의 전문성을 살려 품질 분석과 평가 기술개발, 측정 기술 표준화, 관련 제도개발 등에 힘을 모으게 된다.

고품질 초순수로 세계 물시장 도전

그간 한국수자원공사는 초순수 분석 평가 기술의 개발을 위해 물속에 미량으로 남아있는 금속, 이온 등의 농도를 분석하는 자체 실험실을 운영해왔다. 2030년까지 이를 확대해 세종시에 초순수 종합분석센터를 구축, 극미량 수준까지 기술을 끌어올리는 데 집중할 계획이다. 또한, 이번 협약으로 국내 초순수의 품질 기반을 강화해 진입장벽이 높은 해외 시장 진출에도 탄력을 받을 예정이다.

윤석대 사장은 "이번 협약은 초순수 기술을 우리 손으로 글로벌 수준에 부합하는 표준과 인증체계를 수립하는 첫 시작점이라는 데서 의미가 크다."라며, "초순수의 생산부터 인증까지 전 과정에 걸쳐 자립 생태계를 확립하고, 대한민국의 초순수가 세계 시장에서 상용화될 수 있도록 글로벌 경쟁력을 키워가겠다."라고 전했다.



직원들이 인정한 ‘최고’ 기업

대한민국 일하기 좋은 기업 선정

한국수자원공사는 조직 구성원들의 조직 내에서 만족과 행복을 찾을 수 있도록 다양한
방면으로 노력하고 있다. 그리고 그 노력을 인정받아 지난 2월, ‘대한민국 일하기 좋은 기업 Top 2’라는
명예스러운 타이틀을 거머쥐게 됐다.

글. 편집실 자료. 한국수자원공사



저연차 직원의 정착 지원을 위한 블렌딩 프로그램

직원의 행복과 신뢰를 최우선의 가치로

한국수자원공사가 글로벌 신뢰경영 평가 기관인 GPTW(Global Place To Work)가 주관하는 대한민국 일하기 좋은 100대 기업 Top 2에 올랐다. GPTW는 미국, 유럽 등 세계 150개 국가와 공동으로 기업의 신뢰경영을 평가하는 기관으로서, 한국에서는 2007년부터 ‘대한민국 일하기 좋은 기업’을 선정해오고 있다. 이번 평가는 신뢰경영지수 진단과 구성원의 몰입도, 만족도를 높이는 조직문화 전반에 대해 종합적인 심사가 이뤄졌다. 한국수자원공사는 지난해 5월 노사공동 가족친화경영을 선언하고, 부모가 일하기 좋은 경영환경을 조성하는 등 조직문화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2008년 평가를 시작한 이래 신뢰경영지수 부문에서 역대 최고점을 달성하며 ‘Top 2’라는 성과를 거두게 된 것이다.

이번 시상식에서는 ‘신뢰경영 리더십 콘퍼런스’가 함께 진행되었으며, 특히 한국수자원공사는 이번 성과의 바탕이 된 조직문화에 대한 강연을 통해 큰 호응을 얻었다. 강연은 ‘구성원이 상호공감하고 더 즐겁게 일 할하는 K-water’를 주제로 구성원 간 소통·협업 활성화를 위한 부서 맞춤형 코칭 프로그램 ‘비스포크’, 저연차 직원의 성공적인 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프로그램 ‘블렌딩’, 자녀를 둔 직원을 위한 육아집중형 유연근무제 등 ‘가족친화경영’, 의견을 모아 조직의 변화를 유도하는 무기명 게시판인 ‘톡톡수(水)럼’ 등 조직문화 개선을 위해 실시하고 있는 제도들을 소개하는 자리로 이뤄졌다.

한국수자원공사는 이번 수상을 발판 삼아 앞으로도 일·가정 양립과 상호 존중·신뢰가 바탕이 되는 업무환경을 조성하는데 앞장서며, ‘일하기 좋은 기업’으로 국제적 위상을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대한민국 일하기 좋은 기업 Top 2 선정 트로피



한국수자원공사 노사공동 가족친화경영 선언식

아이돌아 K-water 1.3

한국수자원공사 가족친화경영 슬로건

일(1)과 삶(3)의 균형을 통해 나(1)와 아이의 행복(3)을 만들어가는 K-water의 가족친화경영은 국가 합계출산율이 1.3이 될 때까지 꾸준히 계속됩니다.

물의 가치를 되새기다 2025 세계 물의 날

매년 3월 22일은 UN에서 지정한 '세계 물의 날'이다.
오늘날 물은 기후위기의 핵심 키워드로 꼽힌다.
익숙하기에 더욱 경각심을 가져야 할 물 한 방울의 가치에 대해 되새겨 본다.

글. 편집실

물, 인류 보편의 문제가 되다

물은 우리 삶과 사회 전반에 막대한 영향을 미친다. 그러나 우리 주위에 너무 흔하게 볼 수 있어 그 중요성이 간과되고 있다. UN에 따르면 전 세계에서 제대로 된 물 서비스를 받지 못해 스트레스를 겪는 인구는 자그마치 22억 명에 달한다. 뿐만 아니라 최근 기후변화의 핵심 키워드로 손꼽히며 그 중요성이 나날이 대두되고 있다. 이에 UN은 물 부족과 수질오염을 예방하는 동시에 물의 소중함을 되새기기 위해 매년 3월 22일을 '세계 물의 날'로 지정하고 있다.

지난 1992년 처음 제정된 '세계 물의 날'은 매년 하나의 주제를 선정해 이를 기념하는 동시에 세계 물 위기를 대처하고자 전 세계의 참여를 도모하고 있다. 올해의 키워드는 '빙하 보존(Glacier Preservation)'이다. 빙하는 전 세계 담수의 70%를 저장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그렇기에 식수, 농업, 산업, 청정에너지 생산과 더불어 건강한 생태계 문제와 직결된다. 그러나 지구가 더워지면서 빙하가 급속도로 녹고 있다. 이에 UN은 빙하 보존을 위한 전 세계적인 협력을 강화하고자 2025년을 '국제 빙하 보존의 해'로 지정, 올해의 슬로건으로 내세운 것이다.

2025 세계 물의 날 Keyword

세계 빙하 보존 Glacier Preservation

국내 기후위기 시대, 미래를 위한 수자원 확보

지구에서 빙하가 사라진다면?



기후변화 가속

- 지구의 평균 **기온 상승**
- 홍수, 가뭄, 한파, 폭염 등 **기후재난 반복**



담수의 해수화

- 해수면 상승으로 인한 **침수 지역 발생**
- 빙하의존지역 **수자원 부족 심화**



생태계 붕괴

- 북극곰, 펭귄 등 극지 동물의 **개체수 급감**
- 해양 생물들의 서식지와 **먹이사슬 파괴**



전 세계 사람들과 함께하는 노력

우리나라는 1990년부터 7월 1일을 '물의 날'로 선정해 왔으며, 1995년부터 3월 22일 '세계 물의 날'에 동참, 국제사회의 노력에 발맞추어 가고 있다. 환경부는 기후변화에 따른 물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다양한 주체들의 참여와 노력이 필요함을 강조하고자 올해 국내 주제를 '기후위기 시대, 미래를 위한 수자원 확보'로 선정했다.

환경부 주관의 세계 물의 날 기념행사는 3월 21일 킨텍스에서 개최될 예정이며, 주요 물 관련 유관기관들과 지속 가능한 물관리를 위한 실천과 협력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정부기념식과 함께 열리는 국제 물산업박람회(2025 WATER KOREA) 행사에서는 국내 물 기업의 전시 홍보부스가 운영되며, 해외 바이어 수출상담회, 물 관련 국제 세미나 등이 함께 진행될 예정이다.

NEWS

K-water Monthly Magazine
2025. 03 | Vol. 684

01 **민생안전 위해 수도시설 예방적 점검 강화**



한국수자원공사가 한파 기간 수도물 공급에 지장에 생기지 않도록 예방적 안전 점검 및 비상 대응체계를 강화했다. 그 일환으로 지난 2월 6일 윤석대 사장은 충남 천안정수장을 찾아 시설 전반을 점검하고, 국민 생활과 산업계의 경제활동에 불편함이 없도록 안정적 수도물 공급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돌발상황 발생 시 신속히 복구할 수 있도록 비상 근무체계를 가동하고, 시설물 점검 강화와 충분한 배수지 여유수량 확보 등으로 적극 대응할 것을 강조했다. 강추위 속에서 일하는 근로자의 안전도 꼼꼼히 챙겼다.

이밖에 한국수자원공사는 동절기 기간 전국의 수도시설을 점검·관리하며 비상 상황에 대응한 상시 대응체계를 가동했다. 상습 결빙·누수 의심 구간 등 시설물 특별 점검, 협력업체 및 유관기관 등 연락체계 정비, 비상 급수를 위한 병물 및 물차 확보, 관로 등 신속 복구를 위한 예비자재 확보 등 대응체계를 강화했다.

02 **국제대담회 연차회의 개최 협력체계 구축**



지난 2월 5일 한국수자원공사가 대전광역시, 사단법인 한국대담회와 '2027년 국제대담회 연차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세계최대 댐 기술 학술 콘퍼런스인 국제대담회 연차회의가 한국에서 개최되는 것은 2004년 서울 개최 이후 23년 만이다. 그간 한국수자원공사는 지방시대를 활성화하기 위해 대전에 대덕연구단지 조성, 대청댐 건설 등 지역사회와의 상생을 활발하게 해왔기에 이번 연차회의 유치의 의미가 더욱 깊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개최위원회 구성 및 국제대담회 연차회의 전략 수립, 행사 제반 행·재정적 지원, 댐 등 시설물 견학 지원 및 행사 주관 등이다. 특히 한국수자원공사는 한국대담회 회장으로서 이번 국제대담회를 지방시대 활성화와 대한민국 물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계기로 삼을 계획이다.

03 **행안부-산림청과 산불재난관리 협조체계 구축**



한국수자원공사가 행정안전부, 산림청과 함께 산불 등 대형 화재 재난에 선제적 대응을 위해 역량을 하나로 모으기 위해 '산불재난관리 상호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세 기관은 대형 산불 발생 시 범정부적 인력·장비 지원 및 유관기관 민관협력 협의체 강화, 지자체 계류지 정보 공동 활용 및 확대 추진 등을 협력한다. 특히 한국수자원공사는 댐, 정수장 등 55개소의 국가 핵심기반시설을 다수 담당하는 재난관리책임기관으로서 협약 이후 공동 대응체계 마련 등 국민 안전 확보에 필요한 역할을 다할 계획이다.

04 **‘안전감찰’ 대통령 표창 수상**



한국수자원공사가 행정안전부에서 주관한 '2024년 안전감찰 유공 정부포상'에서 대통령 표창을 받았다. 한국수자원공사 감사실은 안전감찰협의회 구성기관으로서 국민이 일상생활에서 느끼는 안전 분야에서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발굴해 나가고 있다. 뿐만 아니라 국민 의견을 수렴하여 감사에 반영하고, 안전 전문가와의 합동점검을 수행하는 등 관련 규정과 업무체계도 함께 개선해 나가고 있다. 이에 안전관리 내부통제, 안전 정책 및 제도 이행실태 등 분야에서 불합리하거나 미비한 사항을 발굴하여 개선한 점과 적극적인 안전감찰 협력 등을 높이 평가받았다.

05 **군부대에 이동식 정수 설비 구축 협약**



지난 2월 12일 한국수자원공사와 육군본부가 '모듈형 정수 설비 도입사업 위·수탁 협약'을 체결했다. 모듈형 정수 설비는 군 전용 이동식 정수 설비로, 컨테이너 등의 시설물 내부에 정수 설비를 설치하고 외부 충격의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고강도 설계를 적용했으며, 산간 고지대와 같은 열악한 환경에도 운반할 수 있도록 설비를 소형화하여 유사시 이동설치가 가능한 것이 특징이다. 나아가 한국수자원공사는 2026년까지 최전방 20여개 부대에 설비를 시범 도입하고, 향후 대상 부대를 확대하여 육군 장병들의 먹는 물 문제 해소에 기여할 계획이다.

물에게 물었다



글. 박재훈 TV CHOSUN 기자

여름은 덥고 겨울은 춥습니다. 여름엔 비가 많이 내리고 겨울엔 눈이 많이 내립니다. 마치 '숨을 쉬려면 공기가 필요하다'라는 말처럼 당연한 얘가지요. 그리고, 당연하던 것들이 더 이상 당연하지 않게 된 것만큼 무서운 일도 없습니다.

작년 여름은 지독했습니다. 내일이면 또 경신될 줄 알면서도 기사 제목에 '최장 열대야'를 써 붙이길 몇 차례나 반복했고, 100년 빈도·200년 빈도라는 단어가 무색할 만큼 하늘이 뚫린 듯한 비는 자주 쏟아졌습니다. 질긴 더위는 좀체 물러가지 않았고, 은행나무는 10월 중순이 되도록 초록빛이었습니다.

겨울이라고 크게 다르지 않은 듯합니다. 12월에 들어서기도 전에 폭설 취재를 나갈 수 있음을,소한은 춥고 대한은 포근할 수 있음을 저는 이번 겨울에야 알았습니다. 종잡기 어려울 정도로 날뛴 날씨에 '겨울엔 그저 따뜻하게만 입고 나가면 되지' 하던 생각은 통하지 않게 됐습니다. 기후변화는 우리가 당연하다고 여기던 것들을 이렇듯 바꿔놓았습니다.

대격변의 중심엔 단연코 물이 있습니다. 한껏 뜨거워진 채 한반도를 데우는 바다도 물이요, 여기서 폭우·폭설이 되어 땅 위로 떨어지는 것도 물이니까요. 변하는 것은 기후지만, 인류가 생존을 위해 걱정해야 할 것은 결국엔 물로 귀결되는 셈입니다. 물에서 답을 구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기후변화의 홍수에 휩쓸려 나갈 뿐일 것입니다.

그렇기에 물을 다스리는 '치수'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합니다. 수십조 원의 예산과 막대한 사회적 자원을 투입해가며 거대한 댐을 만들고, 전국의 하천을 정비하는 것도 모두 물을 다스리는 힘으로 우리의 '당연한 삶'을 지키기 위함이었노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당연한 삶을 지키기는 일은 생각처럼 쉽지 않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매 여름이면 튀어나오는 '녹조'입니다. 여름철이 되면 수면의 온도가 오르고 집중호우로 부유물이 저수지로 흘러들어옴에 따라 전에 없던 녹조가 말뚝을 부립니다. '마이크로시스틴'이라고 하는 독성 물질이 실제 인간에게 해를 끼쳤든 끼치지 않았든, 논란 자체가 치수 정책을 펼침에 있어 걸림돌이 되는 건 주지의 사실입니다.

이 문제로 취재를 한 경험이 있는 저 역시 여러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기사를 쓸 당시엔 어렵פות이 나마 개념을 이해했지만, 반년이 지난 지금 다시 들춰보려니 따져봐야 할 내용이 여간 어려운 게 아닙니다. 당장 생계에 지장을 받지 않는 일반인의 관점에서 바라볼 땐 '독성 물질이니 인간에게 위험하다'라는 게 오히려 당연한 얘기처럼 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수자원 인프라 강화도 험난합니다. 특히 물그릇 확장에 대한 찬반 대립이 날카롭죠. 내가 태어나 이제껏 살아온 마을에 갑자기 댐이 들어선다면 어느 주민이 선뜻 '좋아라' 할 수 있을까요. 기후변화로 인한 위기, 그에 따른 물의 중요성은 아직 '우리'의 문제가 아닌 '너희'의 문제에 그칠 뿐이라는 증거입니다.

그러나 물은 더 이상 '너희'의 문제가 아닙니다. 생존을 위한 '우리'의 문제입니다. 살아남기 위해서 이는 당연한 얘기가 돼야 합니다. 6·25 전쟁을 겪은 세대 가운데 물을 사 먹게 되리라 상상한 분이 계셨을까요. 마찬가지의 문제입니다. 24시간 깨끗한 물을 쓸 수 있는 것도, 수해로부터 안전할 수 있는 것도 당연한 게 아님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출근을 준비하며 샤워를 하고, 점심밥과 저녁밥을 먹으며 1L의 물을 마시고, 산책 겸 한강변을 좀 걸은 뒤 하루를 마무리하는 밤. 세수하러 틀어놓은 세면대 수도꼭지에서는 언제나처럼 깨끗한 물이 활활 쏟아집니다. "내일도 모레도 오늘처럼 있어 줄 거지?" 우리의 당연한 것들이 앞으로도 당연한 것들로 남아주길 바라며, 저는 물에게 물었습니다.

“내일도 모레도

오늘처럼 있어 줄 거지?”

봄바람 타고 온 소식

매서웠던 바람이 한풀 꺾이고 몸도 마음도 사르르 녹는 계절. 그런데 마음을 간지럽히는 이 봄바람이 순식간에 악마의 바람으로 변신하기도 한다는데, 산들바람을 타고 온 불청객은 누구일까.

글. 조수빈



언제나 방심하는 사이에 일은 생긴다

겨우내 꽁꽁 얼어붙었던 날씨에 조금씩 틈이 생기면서 봄기운이 느껴지기 시작했다. 새순이 열굴을 내밀기 시작했고, 사람들은 한층 가벼워진 옷차림으로 야외 활동에 나섰다. 봄은 새가 지저귀는 소리마저 웃음소리로 들리는 계절이지만, 한편으로는 그렇기에 더 뒤통수를 치는 소식들이 들려오는 계절이기도 하다.

봄에는 유독 산불 소식이 많다. 문제는 작은 불씨가 산 전체를 뒤덮는 대형 산불로 이어진다는데 있다. 산림청에 따르면 전국의 역대 대형 산불의 반 이상이 봄철인 4월에 발생했다. 변해버린 날씨 탓이 크다. ‘봄’ 하면 따뜻하고 온화한 날씨를 떠올리기 마련인데, 최근 해를 거듭할수록 봄의 기온은 높아지고 강수량은 낮아지고 있다. 워낙 비가 적게 내리니 산림 전체가 바짝 마르게 되고 작은 불씨에도 곧바로 불이 붙어 버리는 천연 장작이 되어 버린 것이다.

봄바람의 다른 이름, 양간지풍

그렇다고 마냥 ‘기후’ 탓인 것만은 아니다. 이 시기에 일어난 산불들은 ‘봄철’이라는 시기적 공통점뿐만 아니라 ‘지역’이라는 교집합이 하나 더 있다. 국내 산불 중 가장 큰 규모는 고성, 강릉, 동해, 삼척, 울진에 걸쳐 일어났다. 모두 동해안 지역이다. 봄철 동해안에 부는 바람에는 특별한 이름이 있다. 양양군과 고성군 간성 사이에서 부는 바람이라는 뜻의 ‘양간지풍’은 봄철에 영서지방에서 영동지방으로 부는 국지풍으로 고온건조하고 풍속이 빠르다. 다른 말로는 양양군과 강릉시 사이에 부는 바람이라고 해서 ‘양강지풍’이라고도 불린다. 거대한 산불을 야기한다고 해서 ‘화풍’이라고도 한다.

봄이 오면 겨우내 우리를 움츠러들게 만들었던 시베리아 고기압에 따뜻한 공기가 유입되면서 이동성 고기압을 형성하게 된다. 이동성 고기압은 대체로 서쪽에서 동쪽으로 분다. 문제는 여기서 발생한다. 서풍은 동해안으로 불어오는 과정에서 태백산맥을 만나 산비탈을 오르게 된다. 하지만 먼저 불어온 따뜻한 공기가 산맥 위쪽을 뚜껑처럼 덮고 있기에 서풍은 계속 상승하지 못하고, 산맥을 넘자마자 폭포수처럼 산 아래로 떨어지게 된다. 이 형태가 바로 ‘양간지풍’이다.

양간지풍은 상층의 대기가 불안정할수록, 경사가 심할수록, 공기가 차가워지는 밤중일수록 바람이 강해진다. 그래서 산불이 발생할 경우 진화작업에 애를 먹이며, 불씨의 규모를 키우는 것이다. 실제로 국립산림과학원에 따르면 산불이 났을 때 바람이 불면 확산 속도가 26배 이상으로 빨라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동해는 평소에도 태백산맥이라는 지형적 특성에 따라 바람이 거세게 부는 지역이다. 여기에 봄철의 양간지풍이 부채질을 하는 셈이다.



산불은 대부분 사소한 부주의에서 시작된다. 산을 오르거나 운전을 할 때 함부로 담배꽂초를 던져 버리지 않고, 야영이나 취사 또한 허가된 구역에서만 하면 산불의 위험을 절반 이상 줄일 수 있다. 특히나 봄철에 산에 뒤덮인 나무는 천연 장작이라는 걸 꼭 염두해 두자. 우리가 봄을 기다리는 이유는 예쁜 꽃나무와의 만남을 기대하기 때문이다. 내년에도, 후년에도 이 반가운 만남을 이어가고 싶다면 우선 작은 불씨라도 잘 간수하자. 불어오는 양간지풍을 막을 수는 없으니까.

입학식, 화이트데이 등으로 꽃을 주고받을 일이 많은 3월.
꽃은 아름다운 만큼 금세 시들어버려 안타깝기만 한데,
물만 잘 관리하면 꽃을 더 오래 즐길 수 있다고 한다.
꽃 수명을 늘리는 관리법을 소개한다.

글. 편집실

오래 두고 꽃다발 관리 팁



이틀에 한 번 물 교체하기

물에서 생성되는 박테리아는 생화의 수명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 그렇기에 이틀에 한 번은 물을 교체해야 한다. 물을 교체할 때는 세균이 말끔하게 사라지도록 화병도 깨끗하게 세척해야 하며, 물 교체 주기마다 줄기는 0.5cm 정도 자르는 것이 좋다. 줄기를 다듬을 때는 물을 잘 빨아당길 수 있도록 사선으로 잘라 면적을 넓혀주는 게 좋으며, 이파리에서 나오는 '폐놀'이라는 물질이 물을 빨리 썩게 하니 물에 닿는 부분의 이파리는 필수로 잘라 주어야 한다.



이상적인 물의 온도

차가운 물은 줄기를 수축시켜 물의 흡수를 방해한다. 그렇기에 대체로 실온의 물이 가장 이상적인데, 튜립, 수선화 같은 구근류는 실온보다 낮은 온도의 서늘한 물에 담가주면 좋다. 만약 완전히 만개하지 않은 꽃이라면 실온보다 약간 따뜻한 물을 넣으면 된다.



천연방부제 만들기

레몬주스, 설탕, 락스를 2 : 1 : 1/4의 비율로 섞으면 천연방부제가 된다. 만약 상황이 여의치 않다면 물과 탄산음료를 5 : 1로 희석해도 된다. 단, 탄산음료를 활용할 경우 음료에 첨가된 설탕이 영양분 역할을 하는 것이기에 때문에 '제로' 음료를 사용하면 의미가 없다.

★방울특파원★

#취미는소통 #특기는귀여움

매달 더욱 알차고 다채로운 소식으로 꾸며지는 K-water SNS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유튜브

방울이와 함께 안전 CHECK!

오늘만큼은 저를 '안전 전도사'라고 불러 주세요. 당신의 안전을 책임질게요~

#안전체험교육관

#안전전도사

WWW.YOUTUBE.COM/KWATERTV



블로그

BLOG.NAVER.COM/ILOVEKWATER



봄이 오기 전에 잠깐! 해빙기 안전수칙

#균열점검 #너물성파도 #풍량특보

X(트위터)

TWITTER.COM/KWATER_TWITT



방울이 미모의 비결? 밥상 위에 있지

#저속노화 #혈당관리 #건강한밥상

페이스북

WWW.FACEBOOK.COM/ KWATERWORLD



비상! 비상! 노로바이러스 주의!

#식중독 #음식위생관리 #전염방지

인스타그램

WWW.INSTAGRAM.COM/KWATER_OFFICIAL



너에게만 보여줄게 나의 속마음

#방울이의회사생활 #친한친구 #직장인공감

<물, 자연 그리고 사람>

2월호 이벤트 당첨자 안내

사보에 대한 소중한 의견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



양○인(3279)

청각장애 아이들이 데뷔했다고 해서 참 신기해 했던 기억이 나요. 모든 사람들에게 용기와 감동을 주는 사연이더라고요. 여기에서 만나니 반갑고 이처럼 편견을 깬 사람들이 많다는 것에 감동받았어요.

이○길(7498)

잠이 많아 아침마다 곤욕을 치렀는데, '오늘 일기' 속 직원분들의 이야기에 동병상련과 더불어 잠에서 깨어나는 비법이 알 수 있었습니다. 이제는 '5분 더'가 아니라 '5분 일찍' 일어나겠다고 다짐해 봅니다.

황○정(3775)

요즘 저는 '입을 못이 없다'라는 말을 제일 많이 하는데요. 그런 제 모습을 반성하게 됐네요. 앞으로는 생각을 바꿔 개성도 챙기고 지구도 사랑하는 진짜 멋쟁이가 되어 볼게요. 감사합니다. 지구야 미안해!

조○주(4730)

반복되는 일상에 무료해진 찰나 '해녀'라는 직업에 도전한 진소희 씨의 이야기를 읽게 되었습니다. 무의미하게 보낸 지난날들을 반성하게 되었어요. 소희 씨처럼 저도 힘차게 내일을 시작해 봐야겠어요.

이○상(8139)

챗바퀴 돌듯 살다 보면 매너리즘에 빠지기 쉬운데, 그럴 때 친구들과 즐거운 시간을 갖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각자의 소질을 발휘할 수 있는 활동을 하며 경쟁하듯 두뇌를 깨우는 모습이 보기 좋아요.

EVENT 01

넌센스 이모지 이벤트

이벤트 경품

커피 기프트콘 10명



강○림(7321)

구○형(0781)

권○훈(0086)

김○기(3491)

김○민(5103)

김○원(3017)

박○경(3371)

박○정(9973)

이○중(7303)

한○아(5022)

EVENT 02

미라클모닝 챌린지

이벤트 경품

영화관람권 10명



기○한(4254)

김○경(3649)

김○지(8201)

임○홍(2792)

장○아(3470)

정○진(2555)

조○영(5333)

채○빈(5555)

최○자(3511)

허○현(3649)

EVENT 03

편지지 인증샷 이벤트

이벤트 경품

방울이 유리컵 5명



김○름(8318)

최○선(5818)

오○화(7811)

구○준(5152)

연○열(5421)

※ 3월 10일까지 선물을 못 받으신 분은
070-5069-9500으로 전화주세요.

EVENT 01

<물, 자연 그리고 사람>의 후기를 들려 주세요

3월호 사보 및 웹진을 읽은 후 다양한 감상과 의견을 자유롭게 남겨 주세요. 독자 후기를 보내주시는 분 중 추첨을 통해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참여방법

QR코드 접속 후 구글폼 작성

이벤트 경품

BBQ 치킨(5명)

접수 마감일

3월 20일

선물 발송일

3월 31일



응모하기

검색창에 한국수자원공사 웹진을 검색해 보세요!

한국수자원공사 웹진

EVENT 02

#넌센스 이모지 이벤트

다음 이모지를 보고 정답을 맞춰 주세요.
정답을 맞춰주시는 분 중 추첨을 통해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모든 3월 22일은 UN에서 지정한 '세계 ○의 날'입니다.
빈칸에 들어갈 말은 무엇일까요?

참여방법

- 1 카카오톡에서 '물, 자연 그리고 사람' 검색 후 채널 추가
- 2 1:1 채팅방 클릭
- 3 정답/성함/전화번호 *개인정보 수집에 동의합니다

이벤트 경품

커피 음료 기프트콘(10명)

접수 마감일

3월 20일

선물 발송일

3월 31일



응모하기

생일을 맞은 방울이에게
축하 메시지를 남겨주세요.

편지지 도안은 <물, 자연 그리고 사람>
웹진에서도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웹진 바로가기

3월호 테마 참여 EVENT

내 소울푸드를 소개합니다

3월호 테마 '먹을 수'에 여러분도 함께 참여해 보세요.
여러분의 영혼의 음식은 무엇인가요? **소울푸드**를 소개해주시면
추첨을 통해 10명에게 **배달의 민족** 상품권을 보내드립니다.



참여 방법

STEP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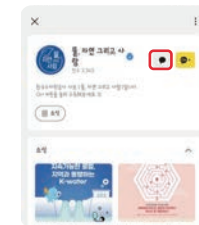
카카오톡에서
<물, 자연 그리고 사람>
검색 후 채널 추가



구독 QR

STEP 2

1:1 채팅방 클릭



STEP 3

소울푸드 소개

소울푸드 소개/
이름/전화번호
*개인정보 수집에
동의합니다

이벤트 경품 배달의 민족 2만 원권(10명)

접수 마감 3월 20일 / 선물 발송 3월 31일



<물, 자연 그리고 사람>
웹진을 카카오톡으로 만나보세요